▪ 교회소식 ▪

선교회 : 오늘 오후집회는 선교회별 모임입니다.
환영회 : 2016년 하반기 새교우 환영회가 오늘 오후 1시 중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세례입교식 : 다음 주일은 성탄주일입니다. 1부 예배 시간에 세례입교식이 있습니다. 세례입교 대상자는 오전 9:15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성탄축하 : 다음 주일 오후 1:30에 교회학교가 준비한 성탄 축하 행사가 열립니다.
세월호유가족과 함께하는 성탄절 예배 : 25일 오후 5시 안산 분향소에서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하는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25일 오후 3시에 출발합니다.
임원교육 : 중구용산지방 임원교육이 오늘 오후4시~9시 정동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신앙실천 :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선물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설교 본문	요 10:7-11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1부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인도자
	2부	김기석 목사	하현철 장로	김정훈 집사

12월	1부 영접위원	박숙미
	1부 헌금위원	이부용
	2부 영접위원	김정민 송형운 추헌영 하미림 박진숙 이혜령
	2부 헌금위원	하현철 진정숙

오늘 식당 봉사 : 신영신 김진경 최종미 박정숙 장미경 박경원 송인선 송동준
다음 주 식당봉사 : 진정숙 원은이 류형민 강경화 김인순 이은경 이용석 최형균
오늘설거지봉사 : 2여선교회(61-65세)
다음주설거지봉사 : 3여선교회(56-60세)
커피 판매 봉사 : 4여선교회(51-55세)
떡 대 접 : 이왕준 권사 (어머니 생신)

2016-51 12월 18일

108 Since 1908·5·1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259 전화: 02)713-5254 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대림절 4주】 인도 1부 : 이범석 목사
2부 : 김재흥 목사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주님 나라는(×3) ……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35. 큰 영화로신 주 …… 다 함께

▲ 공동기도 ……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빛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깊은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안에는 그 어둠을 몰아낼 빛이 없습니다. 빛 되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모든 어둠을 몰아내 주십시오. 불의와 절망이 사라지고 정의와 소망이 솟아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뭇 생명들의 신음 소리를 듣게 해주십시오. 조류독감 예방의 명목으로 한 달 사이에 1,600만 마리의 가금류들이 도살 처분됐습니다. 오로지 인간만을 중시하고 뭇 생명을 도구화하는 우리의 습성을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모든 피조물과 상생과 공존의 길을 모색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 마5:3,4 …… 인도자

▲ 교 독 문 …… 118. 구주 강림(4) …… 다 함께

▲ 영 광 송 …… 1. 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 함께

2부대표기도 …… 안길상 권사

2부응 답 송 …… 찬양대

2부찬 양 …… 99. 주님 앞에 떨며 서서 …… 다 함께

▲ 성경봉독 …… 출 10:21-23 …… I. 인도자 II. 강신철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2부찬 양 …… 나는 찬양하리라 …… 참빛찬양대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권채영 김남종 오복선 김명순 이교영 김명하 오형일 김문주 김성순 김애순
김용길 최영혜 김용태 박정숙 김종락 박영신 김주영 김현주 남선옥 박재영
이현정 박정윤 박준희 이기분 방 민 설규범 오진훈 노순옥 윤미경 윤수진
윤정덕 구성실 윤정득 은종인 이근식 신영신 이미휘 이봉옥 이왕준 송상경
이한림 김명희 임호성 정영례 정진호 양순인 정민경 정현숙 최소라 고인성
최 숙 한상경 한훈식 허재희 허호범 박성실 홍복선 홍순구 안홍숙

감사헌금
고숙이 김 극 김금순 김남종 오복선 김영호 김용태 박정숙 김지현 김혜라
문금석 박기영 이미영 배재경 이수정 서효진 손숙경 오승아 오진훈 노순옥
이은혜 이현규 임광호 임선양 신현숙 주은경 최형주 한상수 남해린 홍금숙
무명

녹색꿈헌금
김지윤 정영우 김향자 정종복 정효진 한 민 한 준 무명4

생일감사헌금
박민선

▪ 집 회 안 내 ▪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선교회	설교 : 김기석 목사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4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chungpa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 마음으로 읽는 글 ▪

그녀가 떠나간 자리에는

할머니 제삿날 밤
어머님이 그리운 음성으로 말씀하신다/
네 할머니가 떠난 자리는 늘 정갈했느니라
할머니가 부엌에서 나오고 나면
솥뚜껑에도 살강에도 먼지 한 점 없었고
해질녘 논밭을 나올 때면
이삭단도 거름더미도 가지런히 정돈돼 있었느니라/
…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부터
장롱 서랍을 정리하고 장독대와 부엌을 정리하고
울타리나 화단에 줄지어 꽃씨를 심어놓고
갓 시집온 어머니를 불러 며늘아가 미안하다
이웃집에 달걀 두 꾸러미, 아랫집에 보리 석 되,
건넛마을 김씨네에 깨 한 되 찹쌀 한 말,
이장네 소 부린 품삯을 조목조목 일러주고
한 사흘 앓다가 가는 잠에 살풋 가신 우리 할머니/
…
그녀가 떠난 다음 해 봄날 아침
단아하게 피어난 금낭화 붓꽃 작약꽃을 보고
꽃밭에 홀로 앉아 울었노라고
어머님은 그리운 음성으로 말씀하신다

– 박노해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신진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 도 사** : 장영숙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윤석철
장 로 : 한완식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지 휘 : 강석남 안홍숙
반 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김진선
교회 및 차량 관리 : 김현동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위로하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만입이 내게 있으면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내 은혜로신 하나님 귀하신 이름을 찬양 찬양

말 씀 …… **어두운 시대의 그리스도인** …… 신진식 목사
거듭기도 …… 다 함께
찬 양 …… 청파8속
▲ 봉 헌 ……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 다 함께
▲ 봉헌기도 …… 담임목사
공동체 소식 …… 담임목사
▲ 평화의 인사 ……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 다 함께

인 도 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 어둠이 짙은 이 시대에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빛 되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 어디를 가든지 생명과 진리의 빛을 비추는 이가 되십시오.

다 함 께: 아멘. 우리에게 빛의 사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어둠만을 탓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생명의 빛을 고이 간직하며 살겠습니다. 그 빛을 가지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 새로운 세상을 열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주십시오. 아멘.

▲ 찬 양 …… 635. 주의 기도 …… 다 함께
▲ 축 복 …… 김기석 목사

▪ 믿음으로 읽는 글 ▪

공동체, 순례, 비움

… 미국에서 대공황이 절정에 달했던 1930년대에 가톨릭 노동자 운동을 시작했던 도로시 데이는 "이 외로움 앞에 내놓는 이번 삶의 유일한 답은 공동체"(도로시 데이, <고백> 복있는사람)라고 말했습니다.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서로의 존재를 환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일 겁니다. 타자가 드러내고 있는 차이를 관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차이를 존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공동체는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나와 생활방식도 가치관도 다른 이들을 환대하고 나의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법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낯선 사람들을 의심하도록 길들여졌습니다. 그렇기에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열고 타자들과 만나지 못합니다. …

오랜 기간 순례길을 걸으면서 겪은 일을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매우 흥미로웠고 유익했습니다. 걷고 또 걷다 보니 그 길 위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하셨지요? 그 말은 온 몸의 힘을 빼고 터덜터덜 정처 없이 걸어보지 않은 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일 겁니다. 순례길에 나선 이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끊임없는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 놀라기도 하더군요. 길을 걷다 보면 길을 잃기도 하구요. 낯선 곳에서 길을 잃으면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친숙하던 세계가 느닷없이 적대적인 공간으로 바뀐 것 같은 불안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길을 잃어보지 않는다면 길을 찾는 기쁨 또한 맛보기 어려운 법입니다. …

시속 1km 남짓한 속도로 걸으면서 자기를 빠르게 지나쳐 가는 젊은 이들에게 말을 건네거나 축복하면서 자기 보폭에 맞춰 걸어가던 70대 후반의 할머니 이야기도 인상 깊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몇 해 전 세상을 떠난 자기 친구를 기억하고 또 그를 위해 기도하며 걷고 있었다지요? 그 시간이야말로 자기 치유의 시간이요, 세상과 화해하는 시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바빠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혹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던 이들의 존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묻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가까운 이들은 당연히 늘 그곳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지요. 일상으로부터 거리를 두어야만 그들의 존재는 둥두렷하게 드러납니다. 부재야말로 그의 존재를 가장 절실하게 드러내줍니다. 할머니는 순례를 떠나기에 적당한 나이는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기 위해 그곳에 계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내 삶을 돌아보니 너무 많은 것들에 둘러싸인 채 살아갑니다. 내려놓고 또 내려놓아야 맑아지고 가벼워질 텐데 자꾸만 뭔가를 더하며 살고 있습니다. 비누도 절반으로 잘라내고, 여벌로 간직했던 속옷도 버리고, 일회용 면도기도 몇 개 버리면서 배낭의 무게를 최소한으로 만들어야 했다 하셨지요? 사실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방이나 장롱에 켜켜이 쌓인 옷이나 살림살이를 보면 마치 내 죄의 무게를 보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우리 내면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이지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하셨을까요? 우리 내면을 자꾸 비워내지 않으면 악취를 풍길 수밖에 없습니다. 맑은 향기를 풍기며 사는 이들은 거 다 자기 비움의 명수들입니다. …

– 김기석, 「세상에 희망이 있느냐고 묻는 이들에게」(꽃자리) 중에서